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京城軌道車衝突事件

會社及 監督當局의 責任如何

一

三昨十七日에는 甲山郡下에서 泰山營林署木材運搬車가 衝突되어 即死者三名과 重輕傷者十餘名을 내인 慘變이 發生하야 一般의 耳目을 놀래게하엿스며 이보다하로느진 再昨十八日에는 京城東大門外 龍頭驛附近에서 京城軌道株式會社의 汽動車와 荷物軌道車가 正面衝突되어 때마침 同汽動車로 實習地에向하든 京城師範學校生徒中 三十五名이란 多數의負傷者를내인 一大交通事故가 發生하야 一般市民의 肝膽을 서늘케하엿다 近日에이르러 交通事故가 頻發하고 따라 이에件하는 人命財產의 損失이 增加함은 都市生活의 複雜化와 運輸交通機關의 機械化에 基因하는 一種 近代的現象가치 思惟되나 그러나 이것은 人間의힘으로 全然 左右할수업는 不可抗力의 所致가아니라 一般의 注意, 設備의 改善, 連絡의 緊密等 平素의 注意와 不斷의努力如何로 어느程度까지 緩和乃至 減少식힐수잇는것이다。

二

今回 東大門外에서 發生한 京城軌道株式會社汽動車의 衝突事件의 直接原因은 아직調査中임으로 그全貌를 알수업스나 只今까지 大體로 判明된바에依하면 첫재로 單線軌道임에 不拘하고 兩處에서 出發할때에 信號가 업섯다는것 둘재로 團體車라하야 放心하고 龍頭驛에서 停車할것을 停車치안코 그대로 通過한것 셋재로 定員六十人의 五割以上을 超過하야 九十五人을 乘車케한것 넷재로 信號手의 信號가 늣젓다는것과 끄트로運轉手가 龍頭驛에서 停車하려하엿스나 制動機가 듯지안허 그대로 通過하엿다는 制動機에 故障이잇슴과 이것을 알고도 그대로運轉을 繼續한것等이다

三

今回事件의 直接原因이 上記諸事實에 歸着된다는것을 볼때 우리는 從來에 京城軌道會社의 設備, 組織, 連絡, 一般이 如何히 粗放하고 大京城의 一部交通의 責任을 負한 同社의 責任者와 및從業員들의 注意가 平素에 얼마나 不足하엿다는것을 發見할때 또다시 一驚치 안흘수 업다 그리고 同軌道車가今日까지 世上을 놀래게한 事故가업시 그대로 經過하여온데 對하여는 오히려 一種의 奇蹟的인感을 禁치못하게한다 東大門과 纛島間은 交通 運輸가 極히 頻繁한 線路임에도 不拘하고 于今單線으로되어잇는것이라든지 더욱이 制動機에 性能을 缺한 老朽車를 使用한것은 모다同社의 設備가 얼마나 不完全한가를 說明하는것이며 兩驛間에 待避線이 업는때도 不拘하고 同一한 方向으로 同時에 發車케 한다는것은 同社의 各驛連絡과 從業員의 注意가 周到치못하엿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그리고運轉手에 依하면 龍頭驛에서 停車하려하엿스나 制動機가 듯지안키때문에 그대로 通過하엿다하며 信號手말에依하면 危險信號를 하엿스나 그대로 通過하엿다하니 이것으로만보드라도 從業員들의 態度가 얼마나 無責任하고 惰慢한가를알수잇다

四

우리는 今回事件에서 暴露된 京城軌道株式會社 從業員의 無責任과 同社軌道車의 諸般缺陷을 指摘하야 同會社의 責任을 問하는同時에 今回事件의責任이 被害者의 不注意 或은 一部 當業者의 過失로因하야 發生한것이아니오 全軌道車를 經營하는 同社全體의 缺陷과 設備의不完全에서 發生한것이라든 今日까지 그와가튼缺陷을 그대로 存續케한 監督官廳의 責任도 免키어렵다고아니할수업다。京城軌道株式會社도 利潤을第一義로함은 營利會社의 經營에屬할것임으로 언제나 收入을 느리고 支出을 節約함에 注力할것은 當然이다 그러므로 設備改善과 人員使用에 잇서서도 恒常支出을考慮하는나마지 往往히 人命에危害를 미칠만한 程度의 缺陷이잇드라도 그대로 無理를 繼續하는데서 及其他에 不慮의 慘禍를 招來하는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防止함에는 會社當局의 覺醒에만 맛길것이아니라 監督當局의 徹底한 監督이 잇서야하는것이다 우리는今回의 事件을 契機로 一般營利를 爲한 交通機關의 監督을任하는 同時에 이方面에 對한 當局의監督이 徹底하기를 要望하는바이다

年八億弗大增稅案 兩院協議會可決

[上下院意見對立으로論爭百五十日]

結局루氏勝利로落着

【華盛頓十八日發同盟】루-스벨트大統領의 社會政策에 基한 大增稅案은 上下兩院의 意見對立으로 過般來 兩院協議會에 附議되엿던바 兩院協議會는 十八日 右增稅案을 可決 百五十日에亘한 議會討議는 드듸어 루-스벨트大統領의 勝利에 歸하엿다 法案의 要旨는 增稅의 均等化를 期하고 또 各會社의配當利潤에 累進稅를 賦課하는點에잇는대 重要한 項目은 左와 如하다

一、個人所得稅附加稅의 增徵을 撤回함

一、會社收入에對하야 八分乃至一割五分의 累進稅를 賦課함

가、米國內에서 營業하는 外國諸會社는 二割二分五厘、米國內에서 一部營業에 從事하는 外國會社는 一割五分配當을 外國에 支拂할 米國會社에는 一割各收益에 課稅

나、通常會社收益은 八分乃至一割五分의 累進稅

다、未配當會社收益에는 七分乃至二割七分의 課稅

一、會社의 株式配當에對하야는 通常個人所得同樣四分의 課稅

一、現行會社收益稅를 廢止

增稅法案에 基한 國庫收入은年額八億弗로 計算하는대 收益의 主要內譯은 如左하다

一、會社收益稅六億二千萬弗

一、雜收益稅八千二百萬弗

一、特殊會社의 破產增加에依한 收入 八千三百萬弗

一、트러스트諸法規修正에依하야 二千萬弗

一、植物性油消費稅 一千萬弗

一、其他雜稅 一千萬弗

(寫眞은 루-스벨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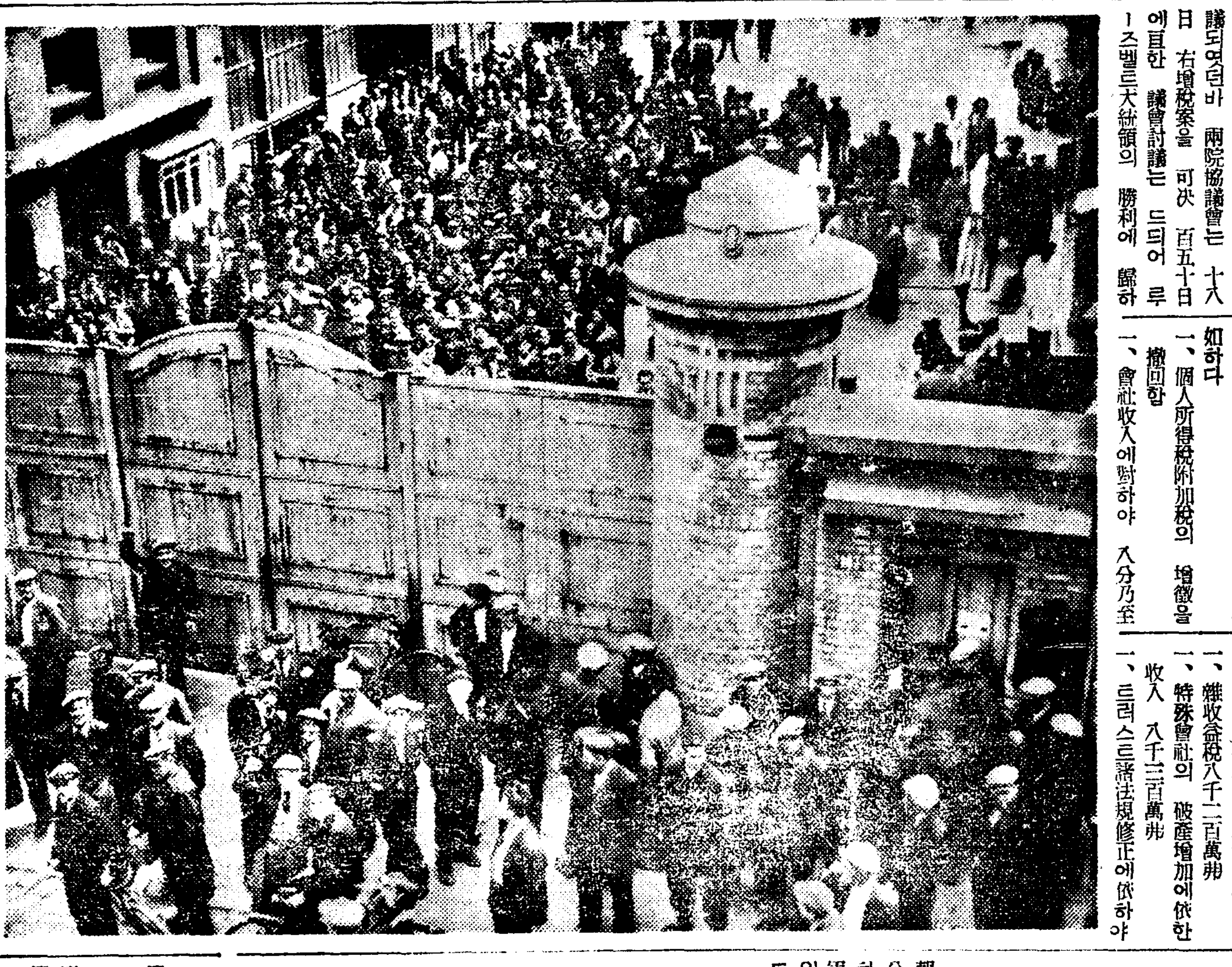
主力艦七隻建造說 米海軍當局은否定

【華盛頓十七日發同盟】英國유니버살通信社는 十七日 스탠드레 海軍長官代理가 英國海軍과의均勢를 維持하기爲하야 主力艦七隻의 代艦建造를 計畫中이라고 傳하엿는데 米國海軍當局은 十七日午後 右報道를 否定하고如左히 言明하엿다

十七日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스탠드레提督은 海軍에對한 米國政府의 從來의 方針을 反復한데끗치고 유니버살通信社가 傳한바와가티 主力艦七隻建造를 企圖中이라고 함과 如한것을述한事實은업다

朝鮮 國有財產法公布在邇

朝鮮國有財產法의 勅令은 近近公布하고 明年四月一日부터施行하기로되엇다 同法施行에依하야 軍部의 所有不用土地는 總督府의 委任管理로 옴겨拂下用地等도 整理될터이다



空前의大勝利─(佛國未曾有의大罷業)

巴里金屬工의 罷業에發端하야佛國未曾有의 過稅大罷業은 레온·블름氏를 首班으로한 人民戰線內閣 必死의調停에依하야 겨우解決되엿는대 社會主義內閣時期어니만치 勞働總同盟의 聲明과가티 『今回의罷業에依하야 勞働階級은 佛蘭西勞働史上 空前의勝利를 獲得하고겨우終結되엿다 寫眞은(一) 罷業中의 在부루제파르만飛行機會社의 勞働者群

相互經濟提携와 獨逸의協力必要

체코代表演說要旨

小協商國經濟會議

【프라그十八日發同盟】小協商諸國의經濟會議는 十八日 프라그市에開催되엿는데 開會式席上에서 체코스로바키아代表 호-자氏는 도나우河沿岸諸國의 經濟提携의 必要를 力說하는 演說을 하엿다 小協商國은 紳士的으로 보드래도 經濟的協調는 絕對로 必要하다 余는 도나우河에 依하야 結合된諸國關係의 提携强化를 熱望하야 마지안는다 그러나 小協商國間의 經濟關係調整維持는 다른列國 特히 獨逸의 支持와協力의 必要한것을 强調하고싶다

中川總督 辭任은不可避

【東京電話同盟】臺灣總督의 更迭問題는 아직 表面化하지아햇스나 中川總督의 辭意는 벌서 不可避하게 되엇스므로 廣田首相과 永田拓相間에는 이미 本問題에關하야 機會잇슬때마다 말을 進行하고 잇는모양이다 그런데 海軍現役將官을 그대로總督으로 하는것은 四圍의 事情上 困難이 伴하므로 結局 海軍出身의 將官中에서 銓衡하게될모양으로 小林躋造大將이 가장 有力視되고잇다

佐藤大使佛外省訪問

【巴里十八日發同盟】巴里駐箚日本大使佐藤尙武氏는 十八日午後 佛國外務省을 訪問하고 外務次官비에노氏와 懇談을交하엿다

時事漫畫 曳引船이 이러케 만혀서야……

英潛水艦使用條項 不遠五個國間調印

【東京電話同盟】倫敦條約第四篇 潛水艦使用 制限條項의 存續問題에 關한 藤井駐英代理大使와 英國側의 크레기參事官과의 會談內容은 十九日午後까지에 外務省에 到達치는안헛는데 同條項의 存續은 倫敦條約에 明記되고 各國이 모다 異議업는 問題이므로 有田外相은 英國側과 充分討議한後 吉田新駐英大使의 着任後 倫敦에서 日英米佛伊五個國間에 正式調印을 行할 方針이다

廣汎한獨裁權 大統領에賦與

十八日波蘭下院서

【왈소-十八日發同盟】波蘭下院은 十八日午後 經濟와 國防事項에 關하야 大統領에게 對한 緊急命令發布의 權限을 附與할 案을 討議하엿는데 거의 滿場一致로 此를 可決하엿다

日本對極東貿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五月中의 日本對滿洲國 關東州及中華民國及香港貿易은 前年同期에 比하야 輸出은 僅四分一厘을 減少하엿스나 輸入은 도로혀 一割一分八厘를 增加하엿스므로 輸出入合計에잇서서 七分의 增加가 되엿다 그런데 一月以降 輸出超過額이 九千五百五十六萬五千圓이되어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千六百十九萬八千圓의出超減이다 (單位一千圓)

	五月	前年同期
輸出	六二、六七九	六五、四〇七
輸入	三二、一四一	二八、七四四
合計	九四、八二〇	九四、一五一
出超	三〇、五三八	三六、六六三

南阿聯邦奮然蹶起 制裁强行에邁進

對伊制裁中止는聯盟破壞를意味한다고

英本國指令을斷乎拒否

【東京電話同盟】英國政府가 伊太利政府의 强壓外交아페 屈服하야 對伊通商金融制裁를 七月一日을 期하야 撤回하기로 決定하고 에티오피아의 領有化를 實質的으로 容認하게되여 世上의 人道主義者를 啞然케하엿는데 그中 南阿聯邦政府는 에디오피아를 伊太利의 餓虎에 두고 自己의 背後에 뭇솔리니首相의 손아 뻐치는것을끄까지 不肯하고 斷乎 그本國의 指令을 拒否하고 對伊制裁繼續을 主張하고잇는것은 注目되고잇든바 十九日 大田케이프타운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報告에 依하면 南阿聯邦總理 헬초-그氏는 十六日夜의 議會에서 對伊制裁强行方針을 明白히하야 이든英外相의 外交의 失敗를 攻擊하엿다 即對伊制裁中止는 聯盟의 破壞를 意味하는것이다 南阿聯邦은 英本國의 意向如何에 不拘하고 또 他의 聯盟國이 그義務를 履行치안케되더라도 獨自의 見解에 따라 斷乎 對伊制裁强行에 邁進하려는者이다。

人民權利尊重 議會制度樹立

蘇聯憲法草案全文 ④

第六章 國家行政機關

第七十九條 聯邦共和國國家權力의 最高執行行政機關은 聯邦共和國人民委員會로함

第八十條 (省略)

第八十一條 聯邦共和國人民委員會는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聯邦共和國에서 施行되는 法令及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人民委員會의 法令에 準據하야 法令을 公布하고 또 그執行을 統制함

第八十二條 聯邦共和國人民委員會는 自治共和國 人民委員會의 法令을 停止하고 또 自治州自治區代表會議 執行委員會의 決定命令을 取消할 權限을 有함

第八十三條 聯邦共和國 人民委員會는 共和國人民委員、最高會議에 依하야 組織되고、議長、副議長、國家計畫委員會議長、食糧工業、木材業、農務、財務、商業、內務、司法、保健、敎育、地方工業、自治都經濟、社會保險各人民委員、農產物購買委員會代表、藝術部長、全聯邦人民委員部代表로써 構成됨

第八十四條 各聯邦共和國人民委員은 聯邦共和國의 權限內에 屬하는 國家行政各部門을 管掌함

第八十五條 各聯邦共和國人民委員은 各人民委員部의 權限의 範圍內에서 聯邦及聯邦共和國의 法律과 聯邦共和國人民委員會의 法令及指令에 準據하야 命令과 指令을 發함

第八十六條 聯邦共和國人民委員部는 二種에 分함 第一種은 『聯邦과共和國』人民委員部로하고、第二種은 『共和國』人民委員部로함

第八十七條 『聯邦과共和國』人民委員部는 所管行政事務를 遂行하고 聯邦共和國人民委員會와 當該聯邦人民委員部에 對하야 責任을 負함

第八十八條 『共和國』人民委員部는 所管事項에 關하야 聯邦共和國人民委員會에 對하야 直接責任을 負함

第七章 最高機關

第八十九條 쏘베트社會主義自治共和國의 最高機關은 自治共和國最高會議로함

第九十條 自治共和國의 最高會議는 四個年의 任期로써 共和國市民이 選出함 選出의比率은 自治共和國의 憲法이 此를 定함

第九十一條 自治共和國의 最高會議는 自治共和國의 唯一한 立法機關임

第九十二條 各自治共和國은 自國의 特殊事情을 考慮하야 獨自의 憲法을 制定함 右憲法은 聯邦共和國憲法에 抵觸되지안토록함

第九十三條 自治共和國 最高會議는 憲法의 規定에基하야幹部會를 選任하고 또 自治共和國의 人民委員會를組織함

第八章 地方機關

第九十四條 自治州、自治區及都市村落의 國家權力機關은 勤勞階級代表者會議 即 쏘베트로함

第九十五條 自治州 自治區와都市村落의 勤勞階級代表會議는 二個年의 任期로써 當該領域의 勤勞市民이 選擧함

第九十六條 勤勞階級代表會議의 選擧制度는 聯邦各共和國 憲法規定에 準함

第九十七條 代表會議는 所屬行政機關의 活動을 指導하고 治安의維持法令의 遵守를 確保하야市民의 權益을 擁護하며 當該地方의 經濟的 文化的建設事業을 遂行하고 地方豫算을編成함

第九十八條 代表會議는 聯邦과各共和國의 法令에 基하야 賦與된 權限의 範圍內에서 各般의決定을 採擇하고 指令을發함

第九十九條 自治州 自治區와 都市村落의 勤勞階級代表會議는 執行行政機關으로 執行委員會를 選任함 執行委員會는 議長 副議長各一名과 數名의委員으로됨

第百條 小地域에서 村落代表會議의 執行機關은 聯邦共和國憲法에 準하야 議長과 代理議長 各一名으로써 構成함

第百一條 代表會議의 執行機關은 그選任된 代表會議에 對하야 責任을負함

第九章 裁判所、檢事局

第百二條 聯邦의 司法部는 聯邦大審院、聯邦各共和國最高法院、共和國과 自治州의地方裁判所 人民裁判所와 聯邦特別裁判所로됨

第百三條 一切의 裁判所의 事件審理에 當해서는 人民代表를 立會케함 但히 特히 法律이 規定한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함

第百四條 聯邦大審院은 最高의 司法機關임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과 聯邦各共和國의 一切의 司法機關의 活動을 監督할 權限을 賦與함

第百五條 聯邦大審院과 聯邦特別裁判所는 五個年의 任期로 聯邦最高會議에서 選任함

第百六條 聯邦各共和國의 最高裁判所는 當該共和國의 最高會議가 此를 選任하고 任期는 五個年으로함

第百七條 自治共和國의 最高裁判所는 當該共和國의 最高會議가 此를 選任하고 任期는 五個年으로함

第百八條 地方과 州裁判所는 當該地方의 勤勞者 代表會議가 此를 選任하고 任期는 五個年으로함

第百九條 人民裁判所는 當該地方의 市民이 普通直接 平等選擧制에 基하야 選出함 任期는 三個年으로함

第百十條 公判에서는 聯邦 或은 自治共和國 又는 自治州의 國語를 使用함 訴訟關係者가 此等國語를 理解하지못할 境遇에는 通譯을 使用하야 充分히 事件의 內容을 知悉할 權利를 享有함 또 土語로써 所見을 開陳할 權利를 賦與함

第百十一條 特別例外를 除하고 各法廷에서는 裁判을 公開하고 被告는 辯論의 權利를 保障바듬

第百十二條 裁判官은 法律에 準據하는外 全혀 獨立의 地位를 保持함

第百十三條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檢事는 各人民委員部及所管各機關과 官公吏及一般市民이 法律을 正確히 遵守하는지 그與否를 監督할 最高의 權利를 賦與바듬

第百十四條 聯邦의 檢事는 聯邦最高會議가 此를 任命하고 任期는 七個年으로함

第百十五條 共和國과 自治共和國 自治州檢事는 聯邦檢事가 此를 任命하고 任期는 五個年으로함

第百十六條 州檢事는 聯邦共和國檢事가 此를 任命하고 任期는 五個年으로함 右任命에關해서는 또 聯邦檢事의 確認이 必要함

第百十七條 檢事局은 一切의地方機關으로부터 獨立하야 그任務를 遂行하고 專혀 聯邦檢事에 對해서만 責任을 負함 (繼續)

夕刊後市況 十九日

◆大阪短期◆

大新	七二八〇	(不變)
鐘新	一五八五〇	(三〇高)
日產	七一四〇	(不變)
東新	一三三九〇	(不變)

◆橫濱生系後引◆ 當限 六六九〇〇 先限 六九五〇〇

◆福井人絹後引◆ 當限 五八〇〇 先限 五六四〇

天下一品! 一家一瓶!

能率은 항상 라이트와 함께平行한다!

ライトインキ (라이트잉크)

チャムピオンインキ本舖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2オンス入(スポイト付) 定價30セン

大阪小賣各店 全國文具店에잇슴……

岡山・渡邊兩博士推獎 喘息新治療藥

コデス (고데스)

百日咳에 小兒用시롭뿌 各藥店에잇슴

讀者에게 試藥送呈

徑岡製藥所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돈벌기大王 リード式製麵膨脹機

五合의쌀이 八升가량의 米菓子가되는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番)

附景品特別

住所氏名入・葉書封筒用 星進印ゴム (但五圓以上ノ品ニ限ル)

クロム側16型懷中 瑞西製

	石數	市價	特價
イ	7石入	7圓ノ品	2.50
ロ	7石入	9圓ノ品	3.75
ハ	7石入	15圓ノ品	5.50
ニ	7石入	18圓ノ品	7.90
ホ	10石	9圓ノ品	5.00
ヘ	10石	13圓ノ品	6.05
ト	10石	17圓ノ品	7.95
チ	10石	20圓ノ品	9.50
リ	15石	19圓ノ品	7.80
ヌ	15石	23圓ノ品	8.90
ル	15石	27圓ノ品	9.55
ヲ	15石	30圓ノ品	13.50

クロム側16型懷中ウォルサム

	石數	市價	特價
ワ	7石入	25圓ノ品	7.55
カ	7石入	29圓ノ品	9.00
ヨ	7石入	33圓ノ品	11.50
タ	7石入	38圓ノ品	17.95
レ	15石	40圓ノ品	15.90
ソ	15石	45圓ノ品	20.80
ツ	15石	55圓ノ品	23.50
ネ	15石	79圓ノ品	32.75
ナ	17石	90圓ノ品	33.00

クローム側腕卷 瑞西製

型		石數	市價	特價
11型	イ	7石入	7圓ノ品	2.70
	ロ	7石入	9圓ノ品	3.97
	ハ	7石入	13圓ノ品	4.99
	ニ	7石入	19圓ノ品	8.50
10型	イ	7石入	8圓ノ品	4.20
	ロ	10石	9圓ノ品	5.90
	ハ	15石	12圓ノ品	6.50
	ニ	15石	19圓ノ品	8.75
9型	イ	7石入	9圓ノ品	5.80
	ロ	7石入	14圓ノ品	6.70
	ハ	10石	17圓ノ品	7.90
	ニ	10石	19圓ノ品	8.80
	ホ	15石	18圓ノ品	6.90
	ヘ	15石	19圓ノ品	8.35
	ト	15石	23圓ノ品	9.50
	チ	15石	27圓ノ品	13.45
8型	イ	7石入	10圓ノ品	6.55
	ロ	7石入	12圓ノ品	7.9
	ハ	10石	15圓ノ品	8.75
	ニ	10石	17圓ノ品	9.20
	ホ	15石	13圓ノ品	7.80
	ヘ	15石	16圓ノ品	9.10

必ず三割以上內金を要し 殘金は振替か小爲替にて願升

前金註文の方は送料弊社負擔 但引換の方は荷造料十錢御負擔願升

天賞堂 東京淺草松葉町二十二 振替東京六六八五七番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有賀光豐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三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朝鮮向織物 一等品二等品 ハギレ 卸問屋

高橋淸問屋

大阪市南區末吉橋東詰 電話東四一一三 振替大阪四三〇一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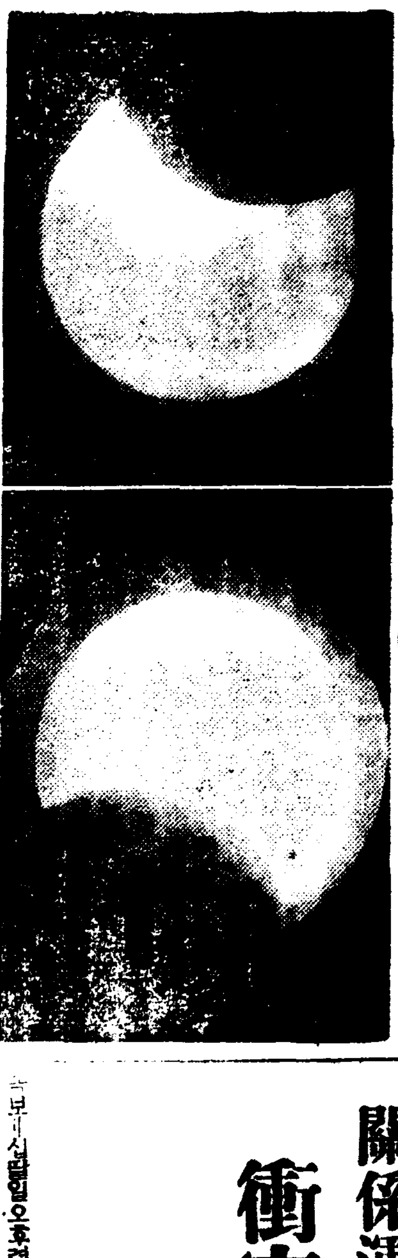
取引銀行 三住友銀行松屋町支店 三和銀行內支店

好職業

男女適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速成어린天文學者들 (十九日午後齊洞公普校庭에서 日蝕을觀測하는兒童들)



仁川에서 觀測된 太陽의 異變 [上]十九日午後三時四十分의現象 [下]同

어린天文學者 各校庭서活躍
昨日午後三時를前後하야 市內日食觀測風景

경성에는 측후소가잇스나 일사계(日射計)가 잇는정도로 일식의전면적관측은 도저히 바랄바도아니엇다 그보다는 보통학교아동들의 일식관측이 대성황이어서 각보통학교의 오륙학년에서는 수일전부터 일식에대한 설명을하여두엇다가 이날은 먹물칠한유리를 작만하여가지고 한시오십분경부터 운동장에나와서 반사판을준비하려고 어린천문학자들이 대긔중이엇스나 두시넘어서 하면약간엷은볕을 뵈엿슬뿐 태양은검은구름속에숨어서 종시나오지안허서 관측은 완전히실패하엿다 문제의"백주의황혼"이차저오는 세시십오분, 인천관측소의설명에의하면 전등을오기바루전만큼은 어두워진다고 하엿스나 흐린날이 다소컴컴거리는듯하엿슬뿐 『백주의황혼』의 신비로운광경은 종저럼 전개되지안헛다 그러나 세시 사십오분경에는다행히 경은구름을 뚤코서 태양이 그자태를나타내여 경성에서는 거의분명히 볼수잇섯스나 그때에는 이미오분의 사가량은회엿고 그남어지 오분의일가량이흑점이엿다 그리하야 마친소나비끄친뒤 길거리에 고요히고여잇는 물속을 길가는 자전거탄사람들도 자전거를내려서 드려다보앗고 장안안의 노픈집옥상에는 이곳저곳에서 먹칠한류리쪼각속을 드려다보고 잇섯다

稚內에서는 完全觀測

【稚內電話】 기다리고바라든개기일식의날인 십구일오후 치내(稚內)는 천기가 매우조하 일식의일부종시를처처롭게 마첫다。오후두시오분이초…정확한예정시각은 조금도 틀림업시 광구(光球)의 왼쪽편아래쪽으로 자그마한 거문그림자가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그거문빗은 퍼저나갓다。이것이 일본서 보는맨처음부분식(部分食)이다。그중학교 "그라운드"에 관측진을펴고잇는 동경과학박물관의 령목경신(鈴木敬信)박사와 지자긔(地磁氣)지전류(地電流)관측의 경대(京大)지구물리학 교실반은 이촉 이상스러운 개긔식은 동리나 함구나할것업시 한가지로 긴장히 긴장되엿다。세시십삼분경은 먹비가튼 어둠이로덥헛다 이리하여 거믄태양의 가상자리에 샛빨간 "프랙슈"가 보이는 그순간 경로박사는 "캐메라"의 귀중한 "샷터"를 눌럿다。

北滿一帶에洪水亂!
保林江岸四面水海 二百同胞安危不明
救援隊出動救護作業

【哈爾濱支局至急報】 십팔일밤열한시 랍빈선(拉賓線) 오조현(五條縣) 조선인민회장(朝鮮人民會長)으로부터 련일 큰비가나리여 보림강(保林江)이 범람하야 동포농민의집단부락은 강물에포위되여 구출의히망이업서 이백명의생명은 위험지경에잇다는급전이 잇서 당지 총령사관에잇는 조선총독부 파견원천천(淺川)금산(金山)양씨는 경관 오십륙명과 다수의 인부와기타 일체필요품을실고 급거현지에 출동하엿다는데 그후의 세한것은 아직불명이라한다

下九臺同胞農場 洪水로全滅狀態
同胞數百名山中避難

【新京】 신경에서 약백오십리되는 경도선하구태(下九台)동포농장이백여호는 금번홍수로 전부바다가되야 아프로이삼일 더홍이계속되면 금번농사는 전멸될것이라하며 현재침수가옥이 백여호라한다 그리고급히 드러오는물을피하지못하여 만주인 삼명은 익사하엿스며 수백동포는산에서 피신하고잇다한다

吉海拉濱線杜絕
京圖京濱八時間不通 各農場은俄然水國化

【新京】 월여를 두고나리든비가 일작일전부터 퍼붓기시작하야 십일아침에는 연경(連京)선 연착경도경빈(京圖京濱)량선시간을 오도가도못하엿스며 길해랍빈(吉海拉濱)선은 교통두절이 되고각농촌은 전면수상태에잇다한다

大屯農場浸水

【新京】 신경서 약사십리되는대둔(大屯)동포농장 삼십여호전부가 물에잠겨 지금홍수곳에피신하고잇다한다

萬寶山五家子도浸水中

【新京】 만보산오가자량농장도현재 홍수로 침수중이다

문둥이가騷動한者拘留處分

시내각처에 문둥병자가 출몰하야 어린아해들을 마음대로 붓잡어간다는 얼투당투안은 류언비어가 성행하야 일반가정의인심을 흉흉케함으로 시내각경찰에서는 이취체에신경을 예민케하고잇는요사이 이취체망에 걸린사나히가 동대문서(東大門署)에잇다 그는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팔백구십번지의이십구호 신홍규(申弘奎)집뒤아래방에 잇는 남궁섭(南宮燮)(三五)이란자로 십팔일오전다섯시쯤되여 그의처 구능순(具能順)(二七)이와가티 날마다 물길러가든 그곳남쪽우물이 말럿슴으로 서쪽우물로 간사이에 그의맛딸 궁순(宮順)(七)이와 둘째딸 궁진(宮眞)(三)이가 깨여나가본즉 부모가다간곳이 업슴으로 궁순이는 동생을업고 놀다나는 남쪽우물로 차저간동안에 부모들이 도라와본즉 아히들이업슴으로 문둥이가 집어간줄만밋고 일대소동이되여 이급보를 접한 소관동대문서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에 깜작놀라 네명의 형사대가 전기현장에 급행하야 일대수사를한결과 전과와가튼 『넌센쓰』가 발견되엿슴으로 남자는 협부로 류언비어를 방송한죄로 곳본서에 인치하야 구류처분에 붓첫다

印章偽造行使 詐欺事件綻露?
嫌疑者一名檢擧

수일전부터 긔창하고 활동중이던 서내 본정서사법계에서는 십구일아침 모처에서 충남(忠南)보령군(保寧郡)에 본적을두고 주소일정치못한 박창규(朴昌圭)(三二)를 인치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하는데 사건의 내용은아직알길이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그는 현재수배중의 모인물등수상인이합작하야 시내동대문시장(東大門市場)상인의 인장을 다수위조하야 가지고 각처로 도라다니며 사긔행사하엿다는데 사건은 취조에따라 판명되는동시 확대되리라고하며 피해는다액에오를모양이라하야대단그추의가 주목된다고한다

登錄안한金鑛으로 入鑛稅徵收致富
昨日、一團三名에게言渡公判

금광을 출원만하고서 등록이나한것처럼 입광세(入鑛稅)까지밧고 금을채굴식히다가 광업령위반에걸린사건——조선광업령위반(朝鮮鑛業令違反)사건피고 부내수표정(水標町)평전정삼(坪田貞三)등세명에관한 언도공판은 십구일오후한시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주심、주전(酒見)검사관여미테 열리여 다음과가튼판결이잇섯는데 그들은 서로꾀하고 강화군불은면(江華郡佛恩面)에잇는 소위평전(坪田)광산이라는것을 그들의로 출원하고 허가도내지안흔터에 입광세를밧고 덕대에게 대규모적으로 작년일년동안 금을 채굴케하야 만흔리익을 어더오다가 경찰에 검거된것이라한다

▲坪田貞三 懲役一年 ▲前原英吉 懲役一年六月 ▲裵斗星 懲役一年(以上各三年間執行猶豫) 追徵金七萬三千四百二十一圓五十錢(三人分擔)

近代稀有한"吸血鬼" 毒牙에걸린二千名
檢事局의取調따라凶惡無道한張東桓에
平壤市民快哉絕叫

【平壤】 긔보=흡혈귀(吸血鬼)평양부내 차관리(敬賢里) 고리대금업 대지주 장동환(張東桓)(五〇)이 사문서위조행사 사긔 횡령배임동 혐의로 평양지방법원검사국 삼본(杉本)검사의 령장집행으로 강제수용이되자 일대에는 쾌재! 쾌재!! 소래가 일어나고잇는데 구서가의 원마(怨魔)장동환의 악착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관의 조마경(照魔鏡)에 미테 나타나고잇는 사실은 다음과갓다。 장동환은 근년 평양부내에서 광산의토지열을 긔화로 남의 토지를 산후 토지권의 이전등긔를 필하자마자 차가인을 못살게하는 부당한 차지료를 강요하여 여기에 응치안흐면 집을 파괴한다고 협박하고 급기야약자인 차가인들이 태도가 연약해짐을보고는 자긔의 요구대로 자긔가 구입할때보다 사오배내지십여배의 차지료를 매여노코는 차지인에게 매도하여 실로 악착하기짝이업는 흉악귀의 야심과발악을 마음것하여 장동환의 독아(毒牙)에걸린 차가인은 과거이삼년동안에만도 서성리(西城里) 기림리(箕林里) 교구정(橋口町)등일대에 수백호에 달햇고 그악착스러운일례를 드려본대도 재작년십일월 치운동절에 부당한 차지료에 응치안는다고 기림리(箕林里)차지인 방창범(方昌範)의집을 파괴하고 온돌의구들장을 전부 헐어 버리고도 부족하여 유일의 밥버리도구인 재봉긔(裁縫機)까지 압수하여 간사실로서도 그행동을 충분히 짐작할수잇다 또 장동환의 독아에 걸린사람중에서 죽전약국(竹興藥局)주인의동생 리정모(李廷模)가 자살까지 한사실도 평양부민으로서는 아직도 긔억이새로울것이다 이밖게 다른사람의 인장(印章)이백여개를 위조하여 이것을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률에 어두운 순후한사람들의고혈을 착취하는 실로몸서리치는 악마가튼 행동을 여상사로 감행하여 그피해자가 이천여명에 달한다고한다

關係運轉手를引致 衝突原因을嚴査
負傷者其後經過良好
◇……軌道車衝突慘事事件續報

십팔일오후령시십분경되어 부외 서호섬(西湖島)에잇는 실습지로가는 경성사범학교보통과삼년생 구십오명을 태운 경성궤도주식회사 제십륙호긔동차가 룡두역(龍頭驛)에서 일백오십"메-터"지점에잇는 룡두교(龍頭橋)다리목 하왕십리궤도길목에서 동회사소유 제팔호화물차와 정면충돌하야 일명의빈사자와 삼십삼명의 중상자외에다수의경상자를 내인사건에대하야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곳 긔동차장 리달우(李達雨)(二二) 화물차운전수 김운선(金雲仙)(二七)동차장 한양준(韓陽俊)(二三) 박영산(朴永山)(二三)등 운전수도직이 박영산의 네명을 인치하고검사의 지휘아래 중요원인에 대하야 엄중취조를 계속하고잇스나 축천책임자인 객차운전수 최무룡이 버서지고 외면정개의 빼가 부러저서 이개월이상의 중상을 볼하고 시내욱정(旭町)로홍병원(瀨戶病院)에 입원중이라 아즉확정한 원인은판명되지안헛스며 부상자의 그뒤경과는 아즉까지는 대개량호한듯하다

軌道車衝突直後론 無斷히運轉休止
不親切한會社의處事에 乘客의不平藉藉

십팔일 오후령시반에 경성궤도회사선로 룡두역(龍頭驛)다리건너에서 경성사범학교생도들을태워가든 긔동차와 반대방향에서오든 화물차와 정면충돌이되여 만흔 부상자를 낸탓으로 말미아마 동대문역과 왕십리역(往十里驛)사이는 종일 운전을 끄첫는대·그회사에서는 운전을휴지(休止)한다는 사실을차타려오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알리지안코 정거장한편구석에 리유도말하지안코 그저운전휴지한다고칠판에 조곰 써두엇기때문에대다수는 뚝섬정거장에서나 동대문정거장에서 차가올가하고 한시간내지 두서간이나 기다리고 잇게되엿다한다 그래서 그차를 기다리고 잇든 사람들은 모다그회사의 불친절한 처사에 대하야 비난과 원망이 만햇다한다

"東京留學"을미끼로 男女青年을欺瞞
自稱東京留學生相愛會會長
本町署에걸려取調中!!

일개월전부터 서내삼각정(三角町)중앙(中央)호텔에 자칭재동경조선유학생상애회(在東京朝鮮留學生相愛會)회장이라하고 유숙하고잇는 손재현(孫在鉉)(二七)(假名)의거동이 수상하야 이래본정서에서 감시중이엿든바 드듸여 그의정체가 폭로되여 십구일에호출하야 엄중취조하는동시에 즉시퇴경시키엿다는데 이제 그가서울와서 일과삼은행장과를 들으면 전과회장이라는 엉터리업는간판으로 이땅에서 동경으로 유학하러가는 젊은학생들의 하교하숙과타 일절을 알선하기위하야 회관(會館)을 만들려고한다는등의 이름조흔허울을 쓰고 다수명사의 명함을가지고 도라다니며 일변젊은녀자들로도 동경유학시키여 준다는등의 감언리설로 꼬인일도잇섯다는 사실이탈로되엿다

冷情한안해를 刺殺코自首

【海州】 날로 냉각해가는 안해의 야속한마음을 원망타못하야 안해를 죽인다음 경찰에자수한 탈선한남편—— 황해도 신천군룡문면상리(信川郡龍門面上里)에사는 신순창(申順昌)(三六)은 자긔처(妻)되는리복순(李福順)(二七)의목을 철은칼로 찔러죽인다음 신천경찰서 룡문주재소(龍門駐在所)에 자수하엿다는데 원인을드르면 전기신순창은 자긔에게대한 안해의 태도가 날로차감으로 그야속한 마음을 증오하면서도 마음이도라서기를 기다렷스나 도라서기는커녕 냉대의정도가 더욱노파감으로 분개한나머지 그가티 탈선하야 비극을비저낸것이라한다

住民의寄附金으로 堤防修築을協議
四十餘龍源面民蹶起

【咸興】 함남홍원군룡원면(龍源面)은 함남도내에서도 굴지의옥야(沃野)로서 동면전면을 흘러내리는 동대천(東大川)을 인수하야 일천여정보의 옥답과 또한 수천정보 의전천여호의 주가가 살고잇는 곳인데 매년하긔강우긔를 당하면 동대천(東大川)제방이 불완전하야 결궤 홍수범으로 전답은 물론 가옥에까지 막대한피해를밧고잇는 상태다 이러케됨으로 몃십년동안 자력으로매년제방을 수축하야 겨우응급책을취하고 잇는바 작년도부터유지한준건(韓俊健)씨등 사십여명이 조직하고 제방수축 긔성회를 이월긔하야 그축성운동에 나아가수차 도당국에 진정까지한 일이잇는바 그러케궈축하야 성취될가망도 뵈이지안함으로 그대책과또긔어히 금번도부터는 실행할예정으로 며칠전 림시긔성회를열고 삼회합으로 개변공사로하야 총변도에는 삼백오천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야 그중 이천원은 도비보조로 이천오백원은 지원민의 긔부(寄附)를 밧기로 결의하얏는데 폐회후에 그직석에서 한준건(韓俊健)씨등이십여명이 약일천이백여원이나 긔부신청을하얏다고하며 불일내로 예정긔부도완료될것으로 보인다고하는데 긔부만완료되면 이지방의 다년숙망이든 제방수축공사를 실행할려이라고한다

모루히네 其他塩類中毒에
福 モナール 모나-루
一朝에治療를그릇처서—모루히네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모루히네』奪除困難에苦憫하시는분은곳福모나-루療法에依하야確實하고完全히事業을하면서모루히네類를除去할수잇고速히舊健康體에回復함으로써安心하고應用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文獻贈呈)
包裝 皮下 5管入 10管入 20管入 50管入 錠劑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MONALFUKU

(規則書贈呈)
電醫養成
醫師同樣聖業
全國無試驗開業
東京電醫學校直系 朝鮮高等電醫
南鮮講習院
釜山寶水町三ノ六二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百發百中
育兒名藥의偉効
救急、治病、保健
無代進呈「育兒の友」
主効 감기、토채고、身熱、緊張、경련、條便下痢、夜泣、夜啼
藥價 二十錢부터 十圓까지 徳用(包)一圓
大阪天滿 本舗 樋屋合資會社
11—K—3

六月十八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名篇 鄉愁
정글의王者
新選組
團成社

當る十八日特別大公開
全京城六十七萬諸兄姉に驚異の話題を提供する中央館が本年度に誇る超特別豪華番組!!
晝夜三回興行 午前十一時上映開始(晝間二回入替ナシ) 夜間之部(六時四十分)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原作宇野千代 東京時事新報連載 脚色陶山密 監督勝浦仙太郎 オール・サウンド
雌雄
伏見信子 竹内良一 入社第一回主演
製作フランク・バック氏 撮影ハリイ・イー・スクワイア RKOラヂオ社日本語版
ジャングルの王
猛獸生け捕り冒險實寫記錄映畫!! 爆發する戰慄! 奔流する驚異! 旋回する恐怖! 貴方の一生で只一度しか御覽になれぬと申し上げてもいゝ程壯快な物凄い映畫が登ります!!
新興キネマ京都超特作 原作吳淸德 監督松田定次
風流奴髭
大谷日出夫・毛利峰子主演
永樂町 電話本局二三番
中央館

京城版

樂園町에交通事故

십팔일오후여섯시반경에 시내락원정(樂園町)이백오십륙번지압헤서 시내창신정(昌信町)오백팔십삼번지의 이성근(李成根)(七)이와 립정정(笠井町)유봉근(柳鳳根)(七)이와 이백오십일번지 김정대(金正大)(二十)가 끌고가던 나무실은수레에 시내락원정이백륙십번지 김선동(金先童)의장남 지영(知英)(七)이가 치여서 다리에전치 이주일동안의 상처를입고 방금중앙(中央)의원에서 치료중이다

氷果類一齊檢查

◇…非衛生的製品이盛行함으로 傳染病期中特別警戒

요지음 본격적 더위가 닥처오자 시내에는골골목목에『아이스케이키』라는 일전짜리어름장수가나와서 흥성하여잇는데 해마다보는일이거니와 전염병이성한 여름철에 이로말미아마 낫븐균이전파되는것이 만흔데비초여 소관본정서위생게에서는 십구일오전에 관내에잇는『아이스케이키』장수를 모조리 불러서각각 어름과자를 몃개식가저다가 방금 불결한지안흔지를 검사중이며 이와아울러 감응묘수도검사중이며 특히 전염병경계의일책으로 검병호별방문(檢病戶別訪問)도함께 하고잇다

三歲兒가即死

"不良빠나나"를먹고 仁川署서藥物商團束

【仁川】"빠나나"먹은지 한시간만에 즉사한사실이잇다 시내부도정(敷島町) 청산모(靑山某)의딸태자(泰子)(三)는 지난십팔일오후사시경 "빠나나"한개를 먹은지 약삼십분만에 복통을 일으키여고민하고 잇는것을 부근병원에서 치료를하얏스나 발병한시간만에 즉사하엿다는데 원인은의외안흔 "빠나나"를 남양으로부터 수입하야 창고속에두엇다가 일반시민에게 판매하는 것이라 그중에는불량품이다소잇다 이것을 잘못먹으면 전긔와가튼불행을 당하게되다는데 특히위장이즁한 발육되지못한어린아해들에게는 생명에까지 손상을일으키게 되는것이다 일반가정에서 특히주의할일이라하며 소관서에서도 수입되는 "빠나나"는 물론 일반과물상에게까지 엄중단속을하리라한다

妙技는續出

劈頭부터緊張

全朝鮮씨름大會盛況

【京南】남부에서 모혀든 이백여명의 피끌는 젊은용사들이 손꼽아대기하든 리태원보통학교 승격축하 협찬회(梨泰院普校昇格祝賀協贊會) 주최와본사경남지국 후원하에 열리는전조선씨름대회는 이욱고 십구일오전열한시부터 경남(京南)리태원정(梨泰院町)너른 터에서장쾌한막이열리엇다 여주엇다 순서를따라 류량한조양소년군(朝陽少年軍)의 취군라팔을 군호로 대회 회장김창완(金昌完)씨의 의미심장한 개회사와 심판장 서명윤(徐明允)씨의주의사항 지시가잇슨후 긔생들의련련한 노래와 장대춤타가 가끗난후 어린이씨름으로 부터시작하야 묘기가 속출하야 의긔는자못 노팟다 경긔장주위는또한 수만관중이 손에땀을쥐고 모혀드러 백렬한가운데에 오후여섯시반에 무사히 첫날은서를마치엇다

三百年前大官墓

屍體는半以上木乃伊

仁川松峴里에서發掘

【仁川】지난십륙일부터 인천부송현리(仁川府松峴里)저수지(貯水地)산에 매일가티 일흔아칩부러 칠팔백의 관중이모히여 중국사신의 묘를파내이는 구경을하라고 대혼잡을일우엇다 전긔묘자는 동리 리종일(李鍾馹)씨의선조로 그종손의 종적은알수업스나 동묘지근방이 주택지화하야짐으로 전긔리씨는 자긔의가족공동묘지로 이장(移葬)하고자 발굴하엿는데 이것을 구경하고저 모여드는 군중으로 잡답을 이루엇다고한다 동묘지는 지금으로부터 삼백년전인 인조(仁祖)대왕시대에 명(明)나라사신으로 평양감사를 지내인 리만영(李晩榮)의 조모의묘로서 관은조금도 썩지안헛슬뿐아니라 관속에잇는시체의 전면은 조금도상하지안코 후면만이 백골이되엿슬뿐인대 그중에도 이상한일은 간노피간반가량 석회로되여잇는 동굴속에는 물이가득하얏다 이를 본관중들은 전긔묘가 만병통치하야 샤위가며떠갓다 그아래전기리만영감사자신의 묘지를 발굴하기시작하얏는대 벌서 그시대의 동제(銅製)의 요강과 재떠리가 나타낫다는대 금명간에는 여하한물건이 발굴될지주목된다한다

延禧松林속에展開된

中等籠球豪華陣

十六校百六十餘健兒의入場式

昨日 延專主催、本社後援下에

중등롱구(籠球)계의 호화진! 연희전문주최와 본사후원의 제륙회전조선중등롱구대회 제일일은 예정과가티 십구일오후네시부터 연전코ー트에서 개막되엿다 이날아침부터 나리든 비는 꾸첫스나 햇볏조차 보이지안는 검흐린하늘아래 롱구경기로는 축복바든날씨엿다 정각에 출장한 열여섯학교일백륙십여명건아들이 씩씩한자태로서 보무당당히입장하니 동대

◇…上은 入場式、中은 大會場全景、下는 白熱된 競技光景

善隣26 大東23 [前4…15、後22…8]

◇第一回戰

大東商業對善隣商業戰은 同四時八分부터 孫禧俊 張利鎭兩氏審判下에 開始한바 結局二十六對二十三으로 善隣勝

反	後	前	【善隣】		【大東】	前	後	反
0	0	8	林伯基	F	金昌植	2	2	1
0	2	0	金東元	F	申甲英	6	2	1
2	0	10	朴元根	C	具本恒	3	2	2
1	2	4	李侑衛	G	金景泰	0	0	0
3	0	0	朴允衡	G	王玉伊	4	0	2
0	0	0	韓相俊	G	尹太均	0	2	3
6	4	22				15	8	9

養正18 普成15 [前5…9、後13…6]

普成高普對養正高普戰은 同午後四時十六分부터 張權、康殷鉉兩氏審判下에 開戰한바 結局十八對十五로 養正軍得勝하엿다

反	後	前	【養正】		【普成】	前	後	反
0	4	2	白南震	F	元鎬植	6	0	0
0	0	0	金根培	F	李德昌	0	2	0
				F	黃河雲	0	0	0
2	3	0	申宗淳	C	玄錫濂	3	1	1
1	4	1	元裕喆	G	李弼行	0	3	1
0	0	0	李亨植	G				
3	2	2	張聖壽	G	李炳巃	0	0	2
6	13	5				9	6	4

培材44 二高25 [前26…14、後18…11]

培材高普對第二高普戰은 同五時五十七分부터 丁相允 李容馥兩氏審判下에 열린바 結局四十四對二十五로 培材高普快勝

反	後	前	【培材】		【二高】	前	後	反
1	6	12	崔志善	F	金宇鎬	0	1	0
0	6	12	金潤昊	F	金善益	3	4	1
0	2	2	河鍾容	C	李康麟	4	0	0
3	0	0	成瑞燮	G	崔毅相	0	2	2
0	2	0	徐永錫	G	鄭裕淳	7	1	4
1	2	0	全龍德	G				
5	18	26				14	11	4

松高27 協實25 [前14…16、後13…9]

松都高普對協成實業戰은 同午後五時一分부터 洪文吉、孫禧俊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結局二十七對二十五로 松高勝

反	前	後	【松高】		【協實】	前	後	反
0	4	0	馬鍾義	F	馬鍾洛	2	2	1
2	4	1	金東番	F	金學源	5	4	2
2	2	8	李俊永	C	姜顯文	7	0	1
1	2	2	李鍾韶	G	林用淳	0	1	1
0	0	0	李熙默	G				
2	2	2	朴正緒	G	咸益柱	2	2	1
7	14	13				16	9	6

京師26 儆信24 [前13…16、後13…9]

儆新學校對京城師範戰은 同午後五時五十三分부터 李洸求、李容馥兩氏審判下에 結局二十六對二十四로 京城師範勝捷하엿다

反	後	前	【京師】		【儆新】	前	後	反
3	1	8	劉世熙	F	金寬植	6	0	1
0	4	3	黃正烈	F	張元一	0	0	0
				F	鄭東湊	0	2	0
2	4	0	宮 垣	C	秋崗燁	1	0	0
0	0	0	盛 良	C				
1	0	0	文榮漢	G	朴仁瑞	0	3	2
0	0	0	松 田	G				
2	4	2	鄭鎬容	G	梁在喜	8	4	1
8	13	13				15	9	4

青學60 中公9 [前32…7、後28…2]

青年會學校對中等公民戰은 同午後六時四十三分부터 金應鎬、方元淳兩氏 審判下에 開始되여 結局六十對九로 青年會學校大勝

反	後	前	【中公】		【青學】	前	後	反
0	0	0	金德圭	F	鄭東津	2	2	0
1	2	0	朴相炘	F	姜允鎬	0	10	0
0	0	0	崔敬煥	F	金慶福	16	2	0
0	0	0	石南壽	F				
0	2	2	金淳模	C	權重燐	6	2	0
3	1	0	李東宰	G	李應斌	2	4	2
				G	李大然	0	2	1
1	2	0	金泳泰	G	金萬壽	6	6	1
5	7	2				32	28	4

徽文56 商工8 [前25…2、後31…6]

徽文高普對京城商工學院戰은 同午後五時九分부터 金應鎬、方元淳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五十六對八로 徽文高普大勝하엿다

反	後	前	【徽文】		【高工】	前	後	反
0	5	4	姜日東	F	張圭錫	0	0	0
0	13	10	尹相燮	F	吳瑢根	0	2	1
0	0	0	宋斗瑛	F				
0	7	3	黃奉鳳	C	金壽昌	0	0	1
0	0	6	沈龜澤	C				
0	4	0	申鳳浩	G	崔俊聖	2	4	0
				G	金東巖	0	0	0
0	2	2	李明天	G	朴鎭東	0	0	0
0	31	25				2	6	2

道商44 中央33 [前20…14、後11…17、延13…2]

中央高普對京城道商業戰은 同午後五時五十六分부터 洪文吉、孫禧俊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三十一對三十一로 同點되엿다가 延長戰에 드러가 四十四對三十三으로 道商勝利하엿다 (게임三十分間)

反	延	後	前	【道商】		【中央】	前	後	延	反
1	4	3	6	李相勛	F	閔仁基	8	4	2	0
0	8	4	9	孫光善	F	李興九	2	6	0	0
3	0	0	5	柳永一	C	白弘基	3	7	0	2
1	0	0	0	李敦永	G	金泉瑞	1	0	0	3
0	0	0	0	柳基泓	G	安德模	0	0	0	1
1	1	4	0	韓龍雲	G	金純石	0	0	0	0
6	13	11	20				14	17	2	6

普專10 (4…0、6…1) 1東北

올림픽籠球의밤

籠球朝鮮의 名譽를 질머지고멀리 伯林올림픽大會로 出征할李性求 康殷鉉 張利鎭 三選手의壯途를 祝福하는 意味에서 열린YMCA靑友籠球俱樂部와延專籠球部 共同發起의 올림픽籠球의밤은 十九日午後八時四十分에 鍾路靑年會體育館에서 열린바 靑年會總務 具滋玉氏와 籠協會長 呂運亨兩氏의 激勵辭가잇섯고 올림픽三選手를代表하야 李性求君의 答辭가끗난다음 番外試合에드러가 延專卒業班對老童팀과의 對戰이잇서 十二對八로老童팀이 得勝하엿다 그리고閔在鎬君의 漫談이잇슨後올림픽選手와靑友와의混合軍對延專의模範競技로서이날의順序를마치엇다

◇寫眞은 올림픽籠球의밤

混合53 (27…26、37…16) 延專53

混合軍對延專殘留軍戰은 同午後十時正刻부터 張權、田炳鎭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同點驟沒하기六回의 大激戰끄테 兩軍五十三對五十三의 同點으로 無勝負로 終了되엿다

反	後	前	【延專】		【混合】	前	後	反
1	7	4	洪文吉	F	金振秀	8	8	0
0	13	6	李容馥	F	李惠澤	4	6	1
				F	孫禧俊	0	0	0
0	11	2	金應鎬	C	康殷鉉	8	6	1
0	0	4	方元淳	G	李性求	4	4	0
1	6	0	金俔信	G	張利鎭	2	3	0
2	37	16				26	27	2

全日本蹴球

普專大勝

十對一로東北敗退

【東京電話同盟】今年度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 第一日…普成專門對東北學院(東北、北海代表)戰은 十九日 午後三時半부터 戶山學校球場에서 普成先蹴으로 開始한바 體格과 스피ー드에優越한 普專은CF裴君을 中心으로 劈頭부터 猛烈히 攻擊하야 結局十對一로 普專大勝하엿다 이리하야 今廿日에는 關西代表 關西學院과 準決勝에對하게되엿다

올림픽拳鬪代表

李奎煥君歸京

伯林올림픽大會에 出征하는 拳鬪代表 李奎煥君(中東 朝拳所屬)은그동안 東京에서 合宿練習中이든바 이번六月二十二日 午前三時三十分 京城驛通過의 올림픽隊와 同行하게되엿섯는데 그보다먼저 準備形便도 잇슴으로 今二十日 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突然歸京하엿다 李君은 二日間에 旅裝準備를마치고 二十二日새벽 京城을通過하는 本隊와함께 戰地伯林에向할터이라한다

(寫眞은歸京한 李奎煥君)

拳鬪規則改正實施

試合直前에計量

【伯林十六日發同盟】拳鬪競技에잇서 各選手의 體計量은 從來의習慣으로는 各競技會開催前日에 計量하면 그것으로서各競技 體重의 標準이되어잇슴으로 國際올림픽大會에서도 亦是이와가튼 方法을取하야 왓는데 今夏伯林에서 열리는 第十一回大會에서는 이計量方法에 關하야 크게改正을하기로 되엇는데 出場選手는 반드시 競技開催前은勿論이요 各試合直前에도 計量하야 出張級을 明確히定하기로되엿다 따라서 各選手는 從來와가티 開會前의 練習으로 體重을試退케하는一方 그選手가試合에出場하는사이에는 반다시 一定한『웨이트』를下降케하고잇슴으로 平常『컨디쉰』으로 出場級보다 上位級에處하야잇슨選手는 큰困難이 생기게되엿슴으로 이點은 特別한注目을이끌고잇다

今日의運動

▲籠球＝第六回全朝鮮中等校大會 第二日 午後二時半 延禧專門『코ー트』◇女子選手權大會中央豫選第二日＝進明對二女、同德對龍谷、淑明對女高普、女師對一女 午後三時半 貞洞町第一女高코ー트

▲庭球＝京城高商主催 全朝鮮中等校大會第一日 午後零時 京師及京城運動場兩코ー트

▲野球＝朝新主催 兩職業團招聘戰 東京세네타ー스對大阪타이거ー스(午後二時)東京세네타ー스對全京城(午後四時)京城球場(觀覽料 指定席一圓 普通八十錢 學生四十錢)

▲陸上＝朝鮮醫學專門陸上競技大會 午後零時半 新龍山鐵道運動場

▲水泳＝第三回全朝鮮學生水上競技大會第一日 午後三時 京城運動場풀

▲柔道＝鐵路中央基靑柔道部及朝鮮硏武館定期段進級試合 午後七時 兩館道場

▲劍道＝延專對徽文高普劍道試合 午後三時 延專道場

마라손의南、孫兩君

戰地獨逸에安着

伯林마라손코ー스踏查

【伯林十七日發電通】世界올림픽마라손代表 孫基禎、南昇龍等一行은 豫定과가티十七日朝、伯林에到着하야 當日午後에 獨逸側의案內로 마라손코ー스를 視察하엿는데 佐藤코ー취는 다음과가티말하엿다

往復二十키로의 自動車道路는뛰기에便할것이나 하ー펠湖畔에나아가면 놉흔언덕이만허서相當한難코ー스이다 그中에도最後의八키로부터 六키로의地點에 標高四十六米와十三米의언덕이둘이나되고 끝直前一키로에잇는標高三十九米의언덕이最大難關이다 이코ー스를二時間三十分에走破하면 優勝할것으로豫想된다 그럼으로 關鍵點까지의 往路를一時間十三分에뛸수잇게 練習시킬作定이다 올림픽村에는 七月二日頃부터 滯在하게될모양이다

女性호르몬
月經調整 女性健康增進
國際標準品에꼭一致되는結晶性『卵胞호르몬製劑』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르몬)
錠劑(百單位) 二〇錠(一圓五〇) 五〇錠(三圓五〇) 一〇〇錠(六圓五〇)
(五百單位) 二〇錠(二圓五〇) 五〇錠(五圓五〇)
注射液 百、三百、千、一萬、三萬、五萬、十萬單位あり。
오바호르몬은、女性特有의生理機能을發現식히는 卵胞호르몬製劑이다。本劑는卵巢機能을 活潑케하며、月經을調整하야 血色素量及赤血球數를 增加하야 諸機能을賦活케하며、新陳代謝를 높히고、下記諸症에쓰면 女性의健康을保護增進식히는다。
月經寡少 月經痛
月經不順 憂鬱症
頭痛 耳鳴 腰痛 下腹痛
肩臂痛 發汗 逆上 疲勞
四肢冷感 視力減退 不感症
乳汁의分泌不足에도 賞用되는
武田發賣品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朝鮮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製造元 帝國社臟器藥研究所 川崎大宮町

モヒ代用藥 中毒治療
スパスミン、ボリカイン、ペチナール、モルダイン
大田順天醫院

腦의疲勞 ノーシン (노ー신)
執務·讀書·工夫·徹夜等時에腦過勞
明快

金銀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一回効散
頭痛 齒痛과 頭痛에 神經痛에도 大端
당장낫는다고好評이 자자한回効散은
잘낫는다고 어느藥房에서나近者에광장이 팔린다고한다
말보다實際一次試用하여보시면안다
本舖 東京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림질藥은 ネオヂリン
胃腸障害를 念慮하시는분 一回一個服用
定價 一圓二十 二圓三十 五圓 十圓
京城本町四 木村藥房 各地藥店有、品切時은

한마리의버레에서 알이二三十萬
驅虫藥 マクニン (마구닌)
効果만코먹기쉽다、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차스타ー제)
『차스타ー제』라하면 于先澱粉消化素라는 概念을갓는것이 妥當하다。따라서『다가챠스타ー제』에는 全然 딴性質의것입니다。왜 그러냐하면 『다가챠스타ー제』는 特히 澱粉質에가장强力하게 作用할뿐아니라· 蛋白質·脂肪其他 二十餘種에 넘치는 主要한消化素가含有되야 그澱粉消化의性能에이서 亦胃液·腸液에對한態度에잇서서는 一般『챠스타ー제』와는 判異한것입니다 다시 吾人의 日常飮用하고잇는 嗜好品· 茶· 컵피ー· 紅茶等에는 그消化力은 阻害되지안는等等……만흔 特性을갓고 一般『챠스타ー제』와는 全혀 判異한獨特한消化素라 認定함으로써이다
消化不良· 消化不良에因한各種의胃腸病· 消化를促進하며 榮養을 增進식히는要訣即各種慢性病者에最適한消化及榮養增進劑이다。
粉末、錠劑各種 (說明書進呈)
『三共의藥品』의定價와 簡單한說明과를 記入한冊子『三共의藥品』이잇스니 參考하실분은 藥書에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면進呈함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强力消化素 SANKYO 三共

産業

朝鮮産苹果世界를風靡
鎭南浦苹果가 英京倫敦에活步
米國産보다品質、香味가優越
斷然壓倒的大歡迎

朝鮮産苹果의 海外進出은 이미 近東諸國은勿論 멀리歐洲諸國에 까지及하얏는데 英國에九、十年 兩年에亘하야 鎭南浦産業組合이 三菱商事를通하야 보낸 實績은 如左하다

期二年間의 輸出은 試驗輸出의域을 未脫하얏스나 現在倫敦의 需要는 米國品이 占하고잇는데 米國品에 比하야朝鮮産은 品質、香味가같다 優良함으로 斷然 壓倒的歡迎을 밧고잇다 單只粒이 不均一하고 너무大粒인點이 指摘되고 잇다

今年度는 繼續하야 積極的으로 輸出할豫定으로 朝鮮産苹果가 倫敦을風靡할날도 不遠하다할것이다

大邱苹果를 上海서注文
商議서斡旋에努力

日本內地 米國 加奈陀 新嘉坡等과 取引을하며 在上海의 米國陸戰隊에 用達하고잇는 上海貿易公司에서는 大邱商工會議所에 苹果와 同加工品을 今後取引하려고하니 適當한 業者를紹介하여달라고 十七日照會가왓다 이에對하야 同所에서는 멀리上海까지 大邱苹果를 進出식히는데 絶好한 機會라하야 慶北果物同業組合에 目錄 其他關係書類等을 急히 上海貿易公司에送附하는等 斡旋에 注力하고잇다 한다

全南春蠶豫想 四萬二百餘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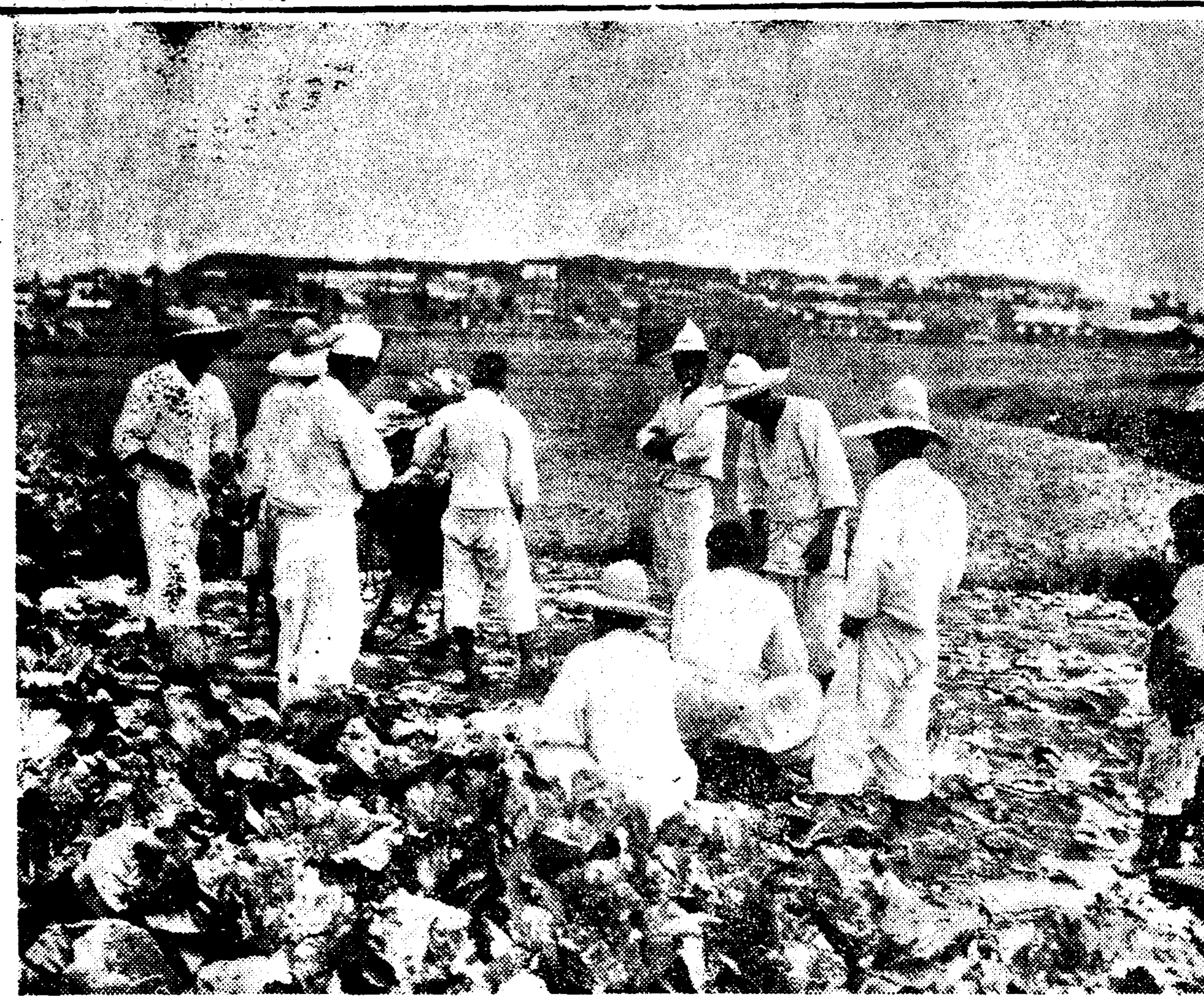
【光州】 全南道의 今年春蠶第二回豫想調査를보건대 産繭百二十八萬二千五百瓩이나되는바 이를石數로 換算한다면 四萬二百石으로 前年實收穫高三萬六千五百石에比하야 三千七百餘石의 增加를 보게되엇다는데 目下養蠶을볼진대 豫想高보다는 若干의 增加形勢인바 桑의 肥培成績及繭價의昻騰實勢를따라 秋蠶은 大躍進을 보리라하야 春秋蠶의産繭額은 八萬石以上이되리라고推定되다한다

保留灰田은 朝窒에開放

總督府의 保留와 先願權保留鑛區는 이제 一兩年間에 相繼하야 開放하고 남은것은 咸鏡北道所在會寧 鏡城等에亘한 褐炭鑛區만으로되엇는바 總督府에서는 이先願 保留鑛區를 開放할方針으로 調査中이엇는데 이번 朝鮮窒素에서는 石炭液化事業의 積極的擴充을 圖하야 海軍式合成液化에 進出하게되엇음으로 大體이會社에 解放할意向이라한다

植物檢査의 內外地協調
―近近實施될形勢―

植物檢査에 對하야서는現在 日本內地와 朝鮮間의 實施에 協調連絡이업서 朝鮮에서 檢査를 通過한것이 日本內地에서 移入禁止되고 如한 矛盾을 生하고잇든바 過般의 關稅署長會議에 出張하얏든 總督府로부터 農林局 千田技師가 朝鮮의 植物檢査에 關한 準則을 設定하기로되엇슴으로 植物檢査行政은 이를 機會로 統一化될터이다


배추 흥정

商議의要望과 總督府의處理
⑬ 最近數年間의經過

▲朝鮮의 遞船業發達을 助長하기爲하야 當局에 對하야 그 保護獎勵法制定을 要望함 (昭和十年六月廿七日要望)

◇理由

朝鮮의 海上運輸交通은 朝鮮産業開發의 要諦로서 當局의 進海航路標識航路補助等에 對한施設에 依하야 近時整備發達을보게 되엇스나 홀로그消長에 至大한 關係를 有하는 遞船業에 잇서서는 모다 그 設備가 不完全하야 朝鮮內 各地 就航汽船의 大部分은 日本內地에서 製造하지안흘수업음은 勿論 그 修繕조차 三百噸以上의것은 이를日本內地에서 하지안흐면 안되는 現狀에잇다 이로 海運業者는 船舶의 注文、製造中의監督 竣工後의 登記登錄의 諸手續及廻航等에 多大한 時日과 經費를 要하야 延하야서는 朝鮮內의 遠洋近海各航路의 培養振興 沿岸海運業者의 不便不利를 招來하야 그發達을 阻害하는 一大原因이 되고잇다하야도 過言이아닐것이다 또 沿海以外의航路에 從事하는 大形船도朝鮮近海는 頻히難航個所가 만허그海難率이 世界第一임으로 年年發生하는多數遭難船舶은 모다 그修理設備를 有하는遞船所가 업기때문에 그때마다 不完全한 應急手當으로 日本內地遞船所에 廻航하지안흐면 안되는 危險狀態에잇다 이제朝鮮內主要港의 群小遞船所三十數個所中 釜山의西濱造船鐵工所를 除한外는 所謂船木工의 域을未脫하고 就中比較的優秀한 遞船所에서도 二三十噸內外의 小型發動機船을遞造할수잇슴에 不過하다 그도製遞價格이 低廉치안흠으로 日本內地遞船所에 奪去되는 貧弱한不振狀態이다 一面朝鮮內遞船業者도 또 別로 그根本對策에對하야講究치안코 二三十噸級以下의 小型船또는 修理船의遞造에滿足하야 겨우 餬口하야왓스나 近時海運의發達에伴하야 可及的 大形高速의經濟船을 要望하는 傾向이 顯著하여저 小形船注文도 漸次減少하야 朝鮮의 傳統的船級의 所謂船木工式遞船所以外는 그자최를 감추게 될것이다

如斯히 그不振의 原因은 主로 遞船用主要材料 及熟練職工은이를 日本內地에 仰하는關係上 그價格과 工賃이 高率이오 一般金利도 또한高率함으로 到底히 오랜 歷史를 有한 日本內地同業者와의 競爭에 견디지 못함에 起因한다할지나 遞船業者로하야금 오래 一般産業開發에 對한 當局의 保護獎勵圈外에 孤立시키기때문이라는 허물도 未免할것이다 現今 朝鮮은 工産業의 勃興이 顯著한데에當하야 産業開發上의 根幹이라할 海運業과 不可分離의 關係에잇는 遞船業만을 現狀대로 等閑에 附함이 不當한 것은 물론 不要하며 朝鮮海運業發達以前의 當初에잇서 船舶業者에게 補助金을 交付하야 航路를 開拓식힌것과가티 遞船業者도 保護獎勵하는同時에 統制指導함에 잇서서는 材料及賃金等의 高率도 반드시 悲觀할必要가 업다 如斯한것은 資金의 融通과 統制에基하야 大量 또는 共同購入에 依하야 職工賃金의 高率은 事業의 間斷업는 繼續에依하야 朝鮮土着의 職工을 養成하야 技術을習得케하면 不遠低廉한 熟練工을 使傭하는데 將來獨立의域에 達成케할 것이며 이리하야 遞船業의發達은 爲先 沿岸航海業者의 利便에 資하고 延하야서는 一般朝鮮海運의 整備完成과함께 産業의 開發을 促進할수잇슬것이다 如上한意味에잇서 朝鮮遞船業에 對한國庫補助에 依한 保護助長은 刻下의 緊急事라고 思料됨으로 當局에 要望하는바이다

▲處理意見 目下硏究中

▲貿易의 振興을 圖하기爲하야 朝鮮總督府는 貿易關係機關을擴充하고 一層그積極的指導獎勵의途를講하기를 要望함 (昭和十年六月廿七日要望)

◇理由

世界貿易의 主流는 歐洲大戰을 轉機로 漸次大西洋에서 太平洋으로 移動하야 特히滿、中及南洋諸國貿易은 益益重要性을加하고 日本의 輸出貿易은 産業經濟의 實力과 相俟하야 그地步를 世界에 展開하고 잇다 도리켜朝鮮現下의 貿易狀態를보면滿洲國의 出現을動機로未曾有의活況을 呈하고잇다할지나滿洲以外의貿易은 거이볼만한것이 업는實狀에잇다 此等은當業者의 自覺意識가 不足함에 因함은勿論이나 一面貿易에 關한 指導機關이 完全치못한 結果에 不外하다 그런데朝鮮産業은 方今全面的勃興의 機運에잇서서 그餘勢는 홀로 滿洲國과 相接함에 끗치지안코 다시 나아가對滿貿易以外의 貿易도 發展시킬 絶好한 機會라고 信한다 當局은 時勢에 對應하기爲하야 速히 貿易關係機關을 擴充하야 一層發展시킴은 勿論 海外貿易 特히 滿、中、南洋諸國의 産業과 貿易上의 實相推移其他貿易에關한 基本的調査硏究를 行하야 當業者의 海外進出을促하고 同時에貿易指導官을配置하야 適切한指導를 行하야써 朝鮮貿易의 發展助長에 寄與를 要望하는바이다

▲處理意見 考慮中이라

確乎한目標樹立 畜牛獎勵를統制
農家實情에立脚增殖

朝鮮의畜牛增産計畫은 各道에서 各히 計畫을 세우고 道別로增殖에 努力하여왓다고 하나 全朝鮮을 統一한 指導目標가업고利用處分에 對하야서도 徹底를欠하는 感이잇서 永年에 亘한增殖獎勵에도 不拘하고 全朝鮮的으로보면 現在數百六十五萬頭臺를 中心으로 上下하고 移出頭數에잇서서도 七萬頭를 不出하는 狀態로 增殖의 實績이나타나지안홈으로 農林局에서는 從來의 各道增殖計畫을 中央에서統制하야 確乎한 目標를 定하고 全朝鮮的으로 統一한 增殖計畫을 樹立할 方針으로 目下具體案을 講究하고 잇다 그리고 計畫을 樹立함에 當하야서는 畜牛의 增殖은 直接 農家經濟更生에 及하는 影響이 不少하야 細羊增殖計畫 馬政計畫等 國策的見地에 立脚한것과는 趣旨를 달리함으로 有畜農業獎勵의 見地에서 農家의 實情에 則한 利用方面에 主眼을 두는同時에 移出獎勵에依하야 自然的增殖을 促進할 方針인데 그補强工作으로 國庫補助에依한 畜牛保險制度創始도 考慮하고잇다한다

五月中淸津經濟界

【淸津】 飛躍的發展途上에잇는淸津의 經濟界는 年復年 膨脹하여가는바 殖銀淸津支店의 調査한바에依하면 五月中의 府內經濟槪況은 左와 如하다

淸津港五月中의 貿易額은 輸移出이 二百三十六萬七千圓이고 輸移入이 三百萬圓으로 總計五百二十六萬七千餘圓에 達하는바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百七十三萬九千餘圓의 激增을 보게되엇는데 이로써 躍進淸津의 經濟界에 活況을呈하고잇다

日窒의石炭液化
獨特한方法採用

野口遵氏가 今番 阿吾地에서着手하려는 石炭液化事業은 現在獨逸이 採用하고잇는 퓌샤法과 달라 石炭을 高壓하야 水素와 化合식히는 方法을 採用하기로 되어잇는바 右方法은 海軍이 오랫동안 德山의 燃料廠에서 硏究한結果 昨年 成功한것으로 아직 試驗時代에잇서서 野口氏의 計畫은 이點 자못 冒險이라할것인데 滿鐵의 液化事業과는 全然 別個로 海軍省의 技師工藤幸介氏가 數個月間阿吾地에 滯在하야 技術指導를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右에要하는 動力은 當初는 石炭을燃料로하야 動力을 으키고 黃水院江水電이 完成되면 電力을 利用할 計畫이라 한다 암모니아 合成에 經驗이 잇는 朝鮮窒素가 同樣의方法으로 石炭液化事業에 進出함은 技術的으로 强點이잇다한다

遠洋漁業의 發達을圖謀
科學的漁撈法考究

從來 朝鮮의遠洋漁業은 그때그때의 魚群의 回遊如何를따라서 漁撈를하여온 感이잇서 每年漁獲高에 差異가 相當하잇서 今年黃海道의 遠洋漁業隊와如한 大缺損을보는等 全然確實性이업서 遠洋漁業의健全한 發達을 阻害하고 잇엇는데 이에 鑑하야 總督府水産課에서는 近近 彦島에서 建造中의 新遠洋漁業指導船의 就航을 機會로 水溫、潮流、魚群의 回遊狀況等에 關한 科學的調査를 實施하야 遠洋漁業의 科學的漁撈를 圖하야 業界의 面目을 一新할 準備工作을 進行하고잇다 그런데 朝鮮內의 遠洋漁業者는 一般으로 資力이缺乏하야 資金의 援助를 要望하는니만콤 今後 遠洋漁業資金의 融通에 關하야서도 考慮中이라한다

永興産組決議事項

【永興】 咸南永興産業組合은 그 更生策에對하야 各方으로 腐心中이던바 오는十八日午前十時부터 永興郡廳會議室에 評議員會를 開催하고 左의 新規事業三項目을 決議하얏다고한다

一、叺製共同販賣斡旋의件
二、生絲配給의件(組合員에게)
三、生絲共同販賣와 熟絲共同製作의件

高原地方도 旱魃極甚
一般農家는焦燥

【咸興】 年復年來增産을 計劃하고잇는 咸南高原에도 殺人的旱魃이 繼續할뿐만아니라 酷暑가 襲來하야 一般村落의 井戶水까지 枯渴되어 一般郡民의 속을 태우고잇는바 一般移秧은 水不足으로 二、三割에 不過하는形便이나 郡內水田作付面積의 五割餘를 占有하고잇는 高原水利組合區內 總作付面積一千三百餘町步에는 水量不足이 업시方今 水組區內의 營農家들은 移秧에 奔忙하고잇다

住友金鑛買收

住友에서〔…〕하야 進行하리라하게 明春까지에 日産百五十噸의 處理規定으로 最近 咸南西原開拓地鑛區를 買收하고 繼續하야 目下 各地에 技術員을 派하야 積極的으로 買收를 進行하고잇서 今後 各鑛業界의 鑛山買收에 一般 興味를 集하리라고 注目되고잇다

東拓의輸入緬羊
七月鎭南浦入港

東拓은 今年度緬羊計畫으로 去十四日 濠洲緬羊一千四百六十頭를 輸入하야 鵬巖牧場에 收容하얏는데 다시 第二回輸入으로 一千三百頭를 輸入하게되어 七月五日 메루보루丸으로 鎭南浦에 陸揚하게되엇다 이는 各道配當의것 及黃海道에 新設하는 新牧場에 收容하는것이다

日用商品市況

▲砂糖 活況

十九日 京城市內 砂糖及 麥粉市況을보면 大體 다음과갓다

砂糖은 需要가 漸增되고잇는 우에 數日來의 더위로 因하야 淸凉飮料方面의 消費도 相當한 關係로 賣行이 良好하며 入荷도 敏活하다 今日市勢는 六十六瓩(百斤)에 對하야

白砂糖 二一、九〇
黃砂糖 二〇、九〇
黑砂糖 一一、五〇
分蜜糖 一七、五〇

가량인데 今後는 砂糖의 新出廻期가 漸次로 머리저가는 니만큼 先高가 豫想된다고한다

▲麥粉 强保合

麥粉은 端境期의 絶頂에 達하야 原料麥이 高價인것과 需要가만흔 關係로 强保合이 繼續되고잇는바 今日市勢는 二十二瓩入 一袋에 四圓二十錢가량이나 日本內地方面은 벌서 新麥이 小量식 出廻되고잇스며 朝鮮도 七月上旬부터 新麥이 出廻될것으로 例年에依하야 先低가 豫想된다고한다

問 肺結核 又는 結核性關節炎에對한藥을 發見하옵고 (材料는草根) 新藥으로 製造코저하오나 京城何製藥所에付托하면 散藥이나 注射藥을 만들수잇습니가 (安東縣 金夏根)

答 京城府禮智町 天一藥房에 直接問議하시오

◇

問 이치고水 製造方法을 下敎하시고 (新設里 이치고商人)

答 이치고水는 이치고로 製造하는것이아니오 이치고原香(人造品)과 食用赤色染料及 糖液을 混合加熱 殺菌하여서 製造합니다 此等藥品은 大藥商에 問議하시면 購入할수잇읍니다

春繭共販消息一束

▲鎭海 鎭海의 春蠶은 氣候의 順調로 桑葉의 發育도매우 良好하얏스며 掃立蠶種도 五百餘枚에 達하야 今年은 例年以上의 好成績을 보리라고 豫想하던바 意外로 五齡에들어가 失敗가만케되야 아직 正確한數字는알수업스나 豫想보다는 매우 減少될것이라하는데 지난十七日부터 鎭海東部養蠶組合에서는 共同販賣를 開始케되얏다는바 當日 價格은 다음과갓다

	改良	普通
特甲	[illegible]	[illegible]
特乙	[illegible]	[illegible]
一甲	[illegible]	[illegible]
一乙	[illegible]	[illegible]
二甲	[illegible]	[illegible]
二乙	[illegible]	[illegible]
三甲	[illegible]	[illegible]
三乙	[illegible]	[illegible]

當日賣買된 蠶繭은 百餘貫에 達한다한다

▲豐山 慶北安東郡豐山繭共同販賣所에서는 지난十七日부터 安東郡農會斡旋으로 春繭共同販賣를 開始하엿는데 今年春蠶繭品質은 良好하다하며 等級別價格은 如左하다한다

▲特等三圓三十四錢 ▲一等三圓六錢 ▲二等二圓七十錢 ▲三等二圓四十九錢 ▲四等二圓二十錢 ▲屑玉一圓五十錢

春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最高 □最低

月日	場所	種別	最高	最低	買	掛目	數量(貫)
六、十六	全南光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七、〇〇
同	全南長城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北井邑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南密陽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南晋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十七	忠南瑞山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忠北沃川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忠北淸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北尙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北完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北南原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南晋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南蔚山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慶南密陽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南光州	白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全南咸平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抽籤馬購入決定

今年度 抽籤馬의購入은 決定되엇는데 合計百十頭로 그配當은 다음과갓다

京城 三〇 釜山 一二
大邱 二〇 群山 一三
平壤 一五 新義州 三〇

山羊飼育法
그管理는이러케하라 (上)

飼育場의設備

乳用山羊을 飼育함에는 爲先그安息所인同時에 分娩室인 山羊舍를 設置할 必要가잇는데 農家나 都會地의 家庭에서 趣味와 實益을 兼하야 二、三頭가량 飼育하는 境遇에는 特別히 山羊舍를 만들 必要는업고 『광』이나 鷄舍나 堆肥舍가튼것을 多少改造하든가 또는 그 南側에 連接하야 기둥을 세우고 六尺가량의 板子或은 洋鐵板『생철』을 달고 그周圍에三四尺高로 板子를둘르고 기리四尺 넓비二尺五寸 가량으로 區劃하는바 비올때에도 그안이젓지안케한다 그리고前面에는 自由로 出入할수업도록 가름대를하고 그갓가이에 飼料器 水器 草架等을 놓코 바닥은 콩크리트나 진흙가튼것으로 굿게하고 一方에 조금傾斜지게하야 尿를 排除케하며 그우에는 恒常淸潔한 稻藁를 까려준다

그리고 그位置가 夏期에는 서늘하고 冬期에는 따듯하며 通風이조코 排水가 조호며 西北風을 막는 建物이나 담이잇고 또 管理에 便하면 더욱조흘것이다 그附近에 空地가잇스면(一二)頭에 一坪가량이면 足하다) 그周圍에 柵을 四尺高로 둘러처 運動場으로하면 理想的인데 中央에 高一尺가량의 平平한 臺를 만드러 四方으로 올라갈수 잇게하야 두면 더욱 조타 마당이잇고 夏期 附近에 그늘지는곳이 엽는때에는 一、二株의 落葉樹類를 심는다 그리고 암컷과수컷을 치는境遇에 注意할것은 수컷은 一種의 臭氣가잇서셔 그냄새가 옴는일이잇스니 암컷과 수컷의 羊舍를 隣接하지안토록 좀 떠러진 場所에 만든다 또 수컷은 性質이 사납고 힘도 쎄므로 多少 튼튼히 만들지안흐면안되는다

飼料

飼料의種類는 一般生草類(毒草는避한다)乾草類 木葉 藁類 野菜類(刺戟性의것은 조치못하다)燕麥 大麥 麩 穀類 豆類 大豆類 豆腐粕 亞麻仁油粕 油粕 醬油粕 鹽粕 骨粉類等 무엇이나 먹음으로 그地方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經濟的으로 어들수잇는 것을 使用할것이다 그러나 米 糠類는 너무給與하지 안는便이 安全하다 또 養蠶地方에서는 桑葉을 주어도 조코 蠶沙를 주어도 조타

그給與比例는 生後六、七個月부터 一個年까지의 것에는 一日一頭에對하야

▲穀一五匁―二〇匁、豆腐粕八〇匁―百匁

▲穀四合―五合、豆腐粕六合―八合、豆腐仁油粕(大豆粕)一勺二勺

三回에 分與하고 그새에靑草이면 七百匁―一貫、乾草면二三百匁를 給與하든가 根菜類를適當히 給與하야도조타

捕乳中이나 姙娠中初期에는 一頭에 對하야

▲穀四合―五合、燕麥二合―三合 豆腐粕五、六合―八合、油粕類二勺―三勺、根菜類三百匁―四百匁

▲豆腐粕八合―一升一合、燕麥二合―三合穀四合―六合油粕類一勺二勺

이를 三回에 分與하고 그새에 前者에는 靑草一貫四、五百匁에 乾草三、四百匁 後者에는 靑草五百匁에 乾草三百匁의 新鮮한 飼料를 給與한다

그리고 飼料를 給與하면서부터 恒常 一日食鹽半勺乃至一勺、燐酸石灰 又는 骨粉을 少量式 給與할것이다 또 靑草나 乾草를 어늬境遇에는 잘게써른 藁나 木葉을 잘간 熱湯에 담것다가 穀粉을 발려주는것도 効果가잇다 如何間 靑草나 乾草類는 낫에 舍外에서 自然採食케하는境遇에는 그만치 減量할수잇슬것은 말할것도업다

一般管理

(一)山羊은 運動이 活潑함으로 비오는날 外에는 낫에는될수록 舍外에 내노아 自由로運動하게 할것이다 萬若 運動場이업는境遇라든가 一、二頭를 飼育하는境遇에는 마당모통이라든가 交通이 頻繁치안흔 草原、草山丘、河邊、堤防等에 말뚝을 꼿고 매어두어 日光浴을 하게할것이다

(二)舍는 恒常乾燥하고 淸潔하게할것이다 그리고 한해에 한번은 羊舍를 大掃除할것이다

(三)每日 或은 隔日、솔로몸을 쓸어주어 汚物을 떠러주는 同時에 血液循環을 조케하야준다 또 낫(面)과 다리가 더럽피엇스면 시처줄것은 勿論 前蹄도 生後三個月頃부터는 一個月에 한번은 낫(鎌)이나 剪定鋏으로 자라니만치 깍가준다

(四)氣候가 不順한때나 치운때 또는 비가繼續하야오는때에는 特히 乾藁를 充分히 깔라주어 保溫에 努力할것이다

(五)恒常 淸潔한 물을 給與할것이다

(六)幼山羊은 泄瀉하기쉬움으로 不良한食物 乳의過飮等에 注意하고 二、三日 消化잘되는 飼料를주면 大槪 낫는다。

蕃殖과育成

年齡=蕃殖에 供하는 種牡及種牝는 健强하고 납분버릇 이업스며 암컷 모다 서어도 一歲半에서 二歲가량、六歲가량까지 使用할수잇스나 二歲로부터 五歲가량이 第一優良한 새기를 낫는模樣이다 但수컷은 十歲가량까지는 大體無妨하다)까지의 것이조라

發情時期=수컷은 언제나 無妨하나 암컷에는 發情時期 即가장强하게 發情하는때는 九月頃부터 十二月頃까지로約三週間마다三日가량繼續하고一月頃부터三月頃까지는四、五週間마다二日가량繼續하나 三月頃부터 八月頃까지는 그리 發情하지안홈으로 가장 强하게 發情한때에 交尾식힘 必要가잇다 그러나 九月頃에 姙娠한境遇에는 酷寒之候에 分娩하게됨으로 될수록 十一月頃부터 一月二月頃까지에 交尾식히는것이 理想的이라한다

그리고 그時期가되면 암컷은 수컷을 그리워하는듯한 우름을 울고 擧動이 平常과다르고 食慾도 幾分減退하며 乳量도 갑작이 減少된다 그리고 陰部는 붉어케 부어오르고 特異한 臭氣가잇는 粘液 또는 血液을分泌하며 수컷을보면 꼬리를 내두르니 이때에 屢屢하야 수컷과 合처주는다

交尾=암컷과 수컷을 合처노으면 最初에는 좀 찾흥초하나 조지나면 낫이익어저서 交尾한다 이때에 너무 낫서른 사람을 갓가이하든가 또는 큰音響을내지안토록 注意할것이다 大體 一回의 交尾로 受胎하나 安心이되지안흠으로 한번더 即翌朝夕二回가량 交尾식히고 그後는 다시 수컷을 隔離한다 萬若이 一回乃至二回의 交尾로 受胎하지안흔境遇에는 암컷은 다시三週間 가량後에는 發情하니 이때에 또交尾식힐것이다

姙娠=交尾後 三週間을 經過하야도 再發情하지안흐면 姙娠한것으로 看做하야도 大體 틀림이업다 이때부터 山羊은 漸次로 動作이 溫和하여지며 疾走하거나 河川을 뛰넘는것과 가튼 動作을 스러하고 食慾이增加되어 肥滿하여진다 또 姙娠과 同時에 乳는 漸次量이 느러서 三個月가량은 繼續되는데 其以後는 再減하기 始作하야 分娩一、二個月前에는 거의 乳가 分泌되지안는다 이期間을 乾固期라고한다 그런데 優良한 山羊은 이乾固期가 짜르고 劣等山羊은 乾固期가 길므로 이때에 비로소 多乳系이가 아닌가 함을 完全히 알수가잇다

黃昏 (11)
韓雪野作 安夕影畵

우정(友情)(三)

『어떤가?일헤보면 한가?』

하고 준식이가 한수의 마친 팔을 유심히보며 웃는다。

『조금 거북하기는 하네만 뭐 괜찬어』

하며 한수는 활동사진의 슬로ー모ー쇼가티 천천히 위팔을 비빙 돌려도 보고 아래위로오르내려도 본다。

그리자 한수의팔이 노는대로 시선을 오르내리고 잇던 길림이가。

『자네는 그때ㅅ일을 모를걸세만, 첨 다첫슬 그때엔 마치재주 잘부리는 난쟁이팔가티 아무러케나 함부로 막 돌아가데 그려、핫、하하……』

하고 너레우슴을 친다。

『요놈아、그래도 이팔에 한번 마저보겟냐?』

하고 한수는 왼주먹을 키적은 길림이의 이마에 내려견운다。

『재간 놀다가 또 어긋날나』

『요놈이……』

하고 한수는 길림이를 금시 때려누일듯이 주먹을 번적 든다。

그와동시에 길림이는 그의주먹을피하야 여윈몸을 재겹게 날려 키보의 뒤로 비켜선다。

『산제(山祭)ㅅ밥에 청메뚜기처럼 뛰긴 잘뛴다』

하며 한수는 뛰어가는 길림이를 마뜩지안케 바라보다가、키보와 길림의 너무도 크고 적은 대조가 우수워나서、

『핫、하하하……천생 전봇대에 파리 붓흔것갓구나』

하고 크게 웃고잇는것을 준식은 그만 제지하듯이、화제를 돌려、

『지금 동필이가 뭐라든?』

하고 한수에게 뭇는다。

『아니 별말 업섯서……』

한수는 무심히 이러케 말하다가 혹 오해나 사지안흘가 하는 생각이나서、

『우리집에 차자가지 못해서미안허다구……그리구 어머니 말을 들으니깐 그새 여러번 차자오고 또 돈도 가저왓더라구……』

하고 동필이가 말하든것을대강 대강 이애기하엿다。

『사실 그사람도 이번엔 애만이 썻네。하마든도 적잔히 모아갓지…… 그리구 주입허구도 자네 당부를 한모양이데……엇잿든 고마운일이야』

『아무렴 그야 그러쿠말구。그래서 튼튼히 고마운 치하를 햇네』

『그런데 우리와는 아무런 이애기도 업시 순전히 개인행동으로 한것만은 좀 섭섭햇서。그사람은……』

하고 순식이가 [illegible] 정떼이가 겨레서、

『우리들의 영웅이겠지、[illegible]

(一騎當百)이 아닌가?』

하고 술적 비꼬는것을 흘적은 전연 불문에 부치는 차잔은 태도로、

『그사람은 과거에는 좀 출실한 사람이엇는데 근자에는 여간 변하지안햇서、이번 일만해도 순전히 개인행동에 끈친는데、그뿐만아니라 우리들 하는 일은 늘 조소하는 태도로 보려고드는 경향이 잇서』

하고 이어 이에 관련하야 회사가 지금 획책하고 잇는바에 대하야 말하엿다。

즉、사장이 중역、사무원을 비롯하야 공장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통일을 도모하라는것과、그리기위하야 선참 소위 견실한 분자를 한데 뭉치게 하라는것과、동시에 과거의 중요분자이든 동필이들을 그편으로 끄려다가 리용하라는것과 그리하는 의의(意義)가 어디 잇다는것등에 대하야 부연해서 말하엿다。

한수는 그말을 들으며 농필이가 아까 자기와 말하는사이에 준식이들을 비웃고 나물하는 동정이 잇든것을 생각하엿스나 거기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안코 그저

『그사람도 마음이 음험한 사람인것갓지는 안허』

하고 벙벙하니 말하고、또키보가 겨레서、

『그사람도 한수일이 생긴후로는 심기가 다소 변한것 갓데 그려』

하고 말하는것을 준석은

『물론 나뿐사람은 아니어、사람으로야 훌륭한 사람이지、보통인간측에 내노면 아주 존사람이구말구……그러나 역시 제일 경계할사람은 그사람이어。솔직도 잇고 또 무슨일이던 하라고들면 해내거든……그리구 여태 순직한 직공들의 신망과 인기를 가지고 잇스니까……그러니까 인제부터는 그와 좀 가까워질 필요가 잇겟서 이때까지도 전연 떠돌리랴고 한것은 아니지만 그편나우리들이 다솜 저나간점도 엄지아햇서』

하고 이어 여게 대하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엿다。

그들은 언제부터 동필에게가까워질 필요를 느끼엿다。

그러는것이 그를 적거들에게서 배반해버리지안케 하는 방도엿다 뿐만아니라 아프로 위기가 닥아올것가튼 몽롱한 불안이 그들 서루서루를 모으게 하엿다